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3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5
예수님의 명령	9
“두려워하지 말라”	18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1
“추수 때에”	38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43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50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56
결론	63

서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 1:8).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그들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했습니다(마 22:39; 막 12:31; 눅 10:27). 자신 같이 사랑하되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망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빌 1:9-11). 그는 그들을 항상 생각했으며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4 절). 그가 그리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교회 시초부터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5 절).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마치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처럼 주님께서 저를 사랑의 불타는 위로자로 세워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보길 원하며,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길 원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로하길 기원합니다. 위로하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그 말씀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므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2014 년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였습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빌립보서 1 장 8 절이었습니다. 그 해 저는 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약 4 년이 지나서야 그 때 전파한 말씀들 중 몇개를 뽑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란 제목 아래 말씀 묵상집으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한 지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조금이나마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불타는 위로자가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6월, 인터넷 사역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빌립보서 1 장 8 절).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빌립보서 1 장 8 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요?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3 가지 교훈을 받아 열심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이웃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 장 8 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모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갈망한다(yearn)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갈망한다는 말은 한 2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1) 우리는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측은히 여겨야 한다[(개혁개정) “내 창자가 들끓으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 장 20 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받으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측은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반드시 그를(우리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 절).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2)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 장 5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하시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케 하시는데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기에는 나쁜 시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좋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기로 우리는 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부부 사랑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1 장 9-11 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하되 그 이웃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우리 이웃 중 특히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결코 한두 번만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 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빌 1:4). 간구하되 그는 그저 한두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 장 4 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였으며(3 절)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3 절).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4 절). 그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그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 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확신이라 무엇이였습니까? 빌립보서 1 장 6 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진실하신 언약의 주님께서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은 특히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9 절). 어떠한 사랑입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목적은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10 절). 그러므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며 허물이 없길 바랬습니다(10 절).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11 절).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되 우리 이웃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아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빌립보서 1 장 5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3-4 절).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시초부터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 절). 그 말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 외에도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MacDonald). 이처럼 우리 모두가 더욱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C 나라를 선교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하시는 윤 장로님과 필리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리 전도사님과 Ryan 전도사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또한 멕시코 티화나를 선교하시는 고메즈 목사님 부부와 선교 팀원들, 멕시코 엔세나다를 선교하고 계시는 김 선교사님 부부와 그 외에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필요한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 대학을 선교하고 있는 미국 부부 및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물질로도 계속해서 후원하십시오. 또한 우리 모두 몽골 영원한 사랑 교회 및 참 사랑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이외에도 우리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힘써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가며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남은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10 장 1-20 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자고 신년 연합 예배 때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모하며(빌 1:8), 기도하며(9-11 절)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자(5 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지난 주 선교주일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성공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살전 1:5-10).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에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5 절, 2:2, 8, 9)을 말로(1:5) 선포하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5 절)으로 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2:13).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1:6).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7 절).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8 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9-10 절).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2:8). 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8 절). 그러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사랑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 장 4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선교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사(행 17:1)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므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되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모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양면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20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들을 부르사(마 10:1)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5 절). 저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3 개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5-6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한국 사람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로만 가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엔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대계명인 마태복음 28 장 19-20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5-6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5 장 24 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진정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에서 그의 열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를 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0 장 6 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결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쉼 곳을 잊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잃어버린 양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옛

언약인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인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두라는 말씀입니다(MacArthur).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 장 16 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은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아는 자들(9:13)로서 의사가 필요한 자들(눅 5:31, 32)입니다(MacArthur).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말씀은 먼저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중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알고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7 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서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했습니다(3:2). 그 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4:17)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들에게 가서 동일한 메시지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천국”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천국이란 곳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21:4). 또한 성경은 그 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계 22:3)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다(5 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고전 13:12).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12 절).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 장 2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요 6:29).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권능)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 지경을 점점 더 넓혀 주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1 절을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6 절) 그들에게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도 명하셨습니다(7 절).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8 절). 어떻게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1 절). 이러한 능력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저 받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면서 그 받은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9-10 절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서는 준비해 놓은 너그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이들로도 하여금 그 제자들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MacArthur).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1 절).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합당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며 그들의 메시지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MacDonald).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아야 할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으로

믿고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12 절).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 절). 저는 이 “합당한 자”를 생각할 때 요한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가 생각났습니다(요삼 3, 4 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3 절). 과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형제들을 사랑하되 심지어 그가 모르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5, 6 절). 그러므로 가이오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길 사도 요한은 원했습니다(7 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1 절)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1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의 집에 머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삼서를 다시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가이오란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요삼 9 절).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9 절)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였습니다(10 절).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10 절).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에게로 갔는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못 만나고 오히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마 10:14).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 몇 가지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하며 마음이 열린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 또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찾아낸 후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6 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란 바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 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마 7:15; 10:16).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 와야 합니다. 여기서 ‘뱀 같이 지혜로 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2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1) 첫째 해석:

뱀이라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감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느낌도 좋지 않고 창세기 3 장 1 절을 보면 뱀은 교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뱀은 교활할 뿐 아니라 또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뱀을 그들의 상용 문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여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동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빨리 예견하여 회피하는 능력을 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위협과 그리고 협박에 대하여서 지혜와 분별력과 경계심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해를 끼칠 것을 미리 알아차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교회를 해하려는 무리로 말미암아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지혜로움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뱀의 지혜로움은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같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하여 화를 자처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 갈 곳까지 가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2) 둘째 해석: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낼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지혜롭게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뱀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갈라진 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혀가 하나인데 뱀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혀’라는 신체 기관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으므로 혀가 하나 보다는 둘인 것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토라를 인용해서 지혜롭게 말을 잘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말은 생명을 담은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로 말하는 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뱀으로서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었습니다(인터넷).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6 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둘기”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는 “요나”란 이름의 뜻이 바로 “비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란 이름의 뜻에는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senseless)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6 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에서 “순결하라”(innocent)란 헬라이어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unmixed, pure)이란 의미입니다(Walvoord).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외에 딱 두 군데만 더 나옵니다: 로마서 16 장 19 절과 빌립보서 2 장 15 절.

(1) 첫 번째 성경구절은 로마서 16 장 19 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6 절에서 “순결하라”는 단어가 로마서 16 장 19 절에서는 ‘미련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6 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했기에(롬 16:19) 그는 그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12:9).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고전 14:20). 그래서 그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후 13:7).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길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리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성경구절은 빌립보서 2 장 15 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는 “순결하라”는 단어가 ‘순전하라’(pure)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순전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욥이란 인물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욥 1:1).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하여 사단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8 절). 이 두 성경구절을 볼 때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악한 데 미련하여 악에서 떠나 순전하라’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악한데 미련하여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미워하므로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잠 8:1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0-21).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그의 제자들을 꾀박할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17-18 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 같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갈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사 그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8-20 절).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뱀 같이 지혜롭게 행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려고 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과 심지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사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우리 집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듣고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 장 24-33 절]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그의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fear the day that technology will surpass our human interaction. The world will have a generation of idiots”(나는 과학기술이 인간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 날이 두렵다. 세상은 천치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인터넷).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과학 기술발전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워했던 그 날이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식당에 가서 아내랑 식사를 하는데 아내 뒤쪽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세 사람을 보니까 어머니와 두 자녀인 것 같아 보였는데 두 자녀들은 식사하면서 각자 핸드폰을 들고 만지작거리면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의 목표는 결국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이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란 생명 공학 등으로 생긴 생명 윤리 문제나 풍족한 생활로 인한 인구 증가 문제 및 환경오염 자원 낭비가 심해지고 과학 기술로 만든 여러 첨단 무기들로 인하여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인터넷). 의학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암도 극복이 가능하여 50%의 이상의 사람들이 5년 이상 생존을 보이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인터넷 글을 보니까 그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치료와 생존율은 아주 크게 높아졌지만, 의료비용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암 발병 진단이후 치료를 이유로 80%가량 실직상태에 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한국 국가 암 관리 사업단의 암 환자 경제 환경 조사에 따르면 암 치료비가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76.5%,

병원방문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응답도 13.7%나 나왔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죽음이 16.1%인 반면에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은 30.7%라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6, 28 절과 31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열 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4-33 절을 한 2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6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5 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the prince of demons)이란 말입니다(9:34; 12:24).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9 장 34 절과 12 장 24 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12:22)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습니다(24 절).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열두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핍박했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도 핍박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4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선생 되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만큼 그의 제자 된 자는 핍박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5 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인 마태복음 10 장 1 절부터 쪽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들을 부르시고(1 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2-15 절) 그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16-23 절). 그 핍박이란 오늘 본문 17 절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기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 절). 이 예언은 그 당시 종교의 최고 치리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초대 교회 사도들이 잡혀 가서 심문을 당하고(행 5:27) 또한 유대인의 풍속에 종교법을 어긴 자를 회당에서 태형으로 다스리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므로 성취되었습니다(행 5:40)(박윤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자들이 바로 공회원들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과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인터넷).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이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핍박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 장 21 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예언의 말씀입니까? 바로 친한 가족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고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족 식구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 장 22 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 장 19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8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도 미움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기에 그의 제자들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되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핍박하되 그들은 심지어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핍박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 장 29-3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핍박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귀히 여기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값이 무척이나 싼 참새가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참새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데(눅 12:6)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마 10:31, 눅 12:7)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눅 21:17-18). 주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식구들도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사 43: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마 10:28).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눅 12:5). 우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핍박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마 10:32). 만일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33 절).

1.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은 이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2.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네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3.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 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네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후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복음성가 “오직 믿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 장 25-30 절]

프랑스 과학자 및 수학자로 알려진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인터넷). “숨 가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일과 생산성이 삶을 지배하고, 한 사람의 생산성이나 성취가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는 문화 속에서 생산과 성취를 위한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생산을 위한 노력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안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략, 계획, 근심, 걱정, 긴장, 노력, 욕구, 폭력, 음란, 쾌락 등 끝없이 밀려오는 긍정적, 부정적 삶의 과제와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쉼, 지적인 쉼, 정서적인 쉼, 육체적인 쉼, 사회적인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안식은 창조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인간이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는 날입니다.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고 살롬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지친 영혼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진해진 육체가 쉼을 통해 회복되는 날입니다.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며,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계획과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내면을 성찰하며, 노동과 수고로부터 쉼을 얻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으며, 이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웃을 향해 사랑의 눈을 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속죄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으로 일어나는 날입니다”(인터넷).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주일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을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한 3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 “너희”는 “어린 아이들”(infants)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5 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영어 성경(NASB)에는 “infants”(갓난아기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childlike, innocent, simple people)을 가리킵니다(Friberg). 이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5 절에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the wise and intelligent)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청한 사람들은 세상 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1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것(고전 1:21)인 그리스도의 십자가(17 절)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믿는 자들입니다(25 절).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단순한 사람들(simple people)]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벧전 2:2). 즉,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3 절).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옴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헌신합니다(시 63:3).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너희”는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7 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계시를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27 절).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0 장 26 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때까지 세상이 모르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또는 그의 능력으로 밝히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박운선). 그렇다면 “계신 받는 자”들이란 마태복음 10 장 26 절 말씀에 근거해 생각해 볼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나므로 숨은 것을 알게 된 자들, 즉,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어린 아이들(25 절)과 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 장 17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15 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16 절).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네게 계시해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 절).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므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8 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와 그 죄의 결과들(sin and its consequences)의 짐을 진 자들을

가리킵니다(Walvoord). 이러한 짐을 진 자들에 대하여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편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고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그는, 자기의 모든 하는 일에 정죄를 받은 자이다”(박윤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 하면서 불순종한 모든 죄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운 수박에 얽힙니다. 새 찬송가 337 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1 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2 절)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 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저주시네”, (4 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우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들, 그로 인하여 닥치는 환난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는 그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8 편 4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속에서 죄의 중압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도 이러한 죄의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 장 24 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말했습니까? 왜 그는 죄의 중압감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서 7 장 15-20 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죄)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얼마나 곤곤한 사람입니까? 죄의 짐이란 이렇게 무겁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인가 입니다.

누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요 계시 받은 자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물론 여기서 “내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3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5 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세상 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되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눅 10:21).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케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마 11:27). 이 예수님의 감사하심을 목상할 때 요한복음 11 장 41-42 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43-44 절).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적을 이루시기 전에 떡을 가져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11 절). 감사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셨을 때 남자만 5,000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11-12 절).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매 그 당시 세상 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지만(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어린애 같은 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마 11:25).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6 절을 보십시오: “홍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그의 복음을 세상 적으로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어린애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뤄지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길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간구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26:39).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빌 2:8).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4).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어린 아이와 같이(마 11:2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27 절). 이들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7:21; 참고 12:50).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요 6:30). 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마 11:28).

(3)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9 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유 겸손입니다(빌 2:8)(박윤선). 즉,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죄의 짐을 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빌 2:7-8) 아버지의 뜻(마 11:26)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7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28 절)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28 절)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 장 29 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바로 마음의 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쉼이란 바로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28 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안식이란 바로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목상했듯이 시편 기자는 시편 38 편 4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죄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했습니다(롬 7:24).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말했습니다(25 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8 장 1-2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이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새 찬송가 268 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란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1 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 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 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중동에서 소가 멩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은 매우 흥미롭다고 합니다(인터넷). 멩에는 실제로 어미 소의 목에만 걸고, 새끼 소는 그 멩에 속에 목만 집어넣게 하고는 끌고 한다고 합니다. 어미 소는 혼자 멩에를 뺏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끼소는 그냥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새끼소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멩에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괜히 땀만 흘리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다 새끼소가 어미 소와 함께 무거운 멩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미 소 혼자 멩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멩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여 그 멩에를 같이 메는 자들에게 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새끼 송아지 마냥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다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힘든 멩에를 친히 져주시고 단지 따라오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마태복음 13 장 1-9 절]

여러분, 수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선거 실시 후 뽑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는 남아공 옛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990년 2월 11일,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한번은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아 감옥에 데리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 때 만델라는 그 손주의 이름을 ‘희망’(Hope)이라고 지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로부터 떠나간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인터넷). 여러분, 이것이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 그의 마음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이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심겨주신 희망의 씨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6 장 1-15 절(오병이어의 말씀)과 교회적으로는 마태복음 16 장 18 절(‘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 제 마음 밭에 이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씨앗들로 하여금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오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저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1-9 절을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모여 든 큰 무리들에게(2 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4 가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네 땅이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 땅 중에 네 번째 땅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8 절).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눅 8:11)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란 제목 아래 4

가지땅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3-4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3 장 19 절에 이렇게 그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즉, ‘길 가에 씨가 뿌려진 자’란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4 장 15 절을 보면 저자 마가는 “사단”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8 장 12 절을 보면 저자 누가는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왜 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8 장 12 절을 보십시오: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빼앗습니다. 빼앗기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와서 우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습니다(막 4:15). “길 가”와 같은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운동과 영향에 개방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섭취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병통입니다(박운선). 즉, 길 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자세가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잠언 22 장 17-29 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listen obediently)는 것이었습니다(Harris). 만일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물론 사단이 그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강박(완고)해져서 어느 누구의 사랑의 책망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단에게 그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잠 22:18).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19 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그 말씀을 우리 소유로 만들 때에(시 119:56)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자세로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연약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의 삶입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5 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3 장 20-21절에서 그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즉, ‘돌밭에 씨가 뿌려진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도 “돌밭에 뿌려진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8 장 13 절을 보면 “잠시 믿다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고통)이나 박해(핍박)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막 4:17) 심지어 믿음을 “배반”합니다(눅 8:13).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마 13:21, 막 4:17). 이것이 바로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강준민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이란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강준민). 예수님을 닮아가는 뿌리 깊은 영성에 가운데 저자가 말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말은 ‘뿌리 깊은 영성은 먼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 밑으로 성장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말에 대하여 한 4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취, 성과, 결과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에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영혼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2)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영성: (빌 2:7-8)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3) 자신을 감추는 영성: “뿌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돌보는 영성: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엡 3:16). ”뿌리는 언제 깊이 내릴 수 있는지요? 그것은 시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40 년 동안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쉬면서 뿌리만 가꾸게 됩니다. 나무에게 겨울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게 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존 번연도 그러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제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강준민).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꺾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잠 12:3). 골로새서 2 장 6-7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고전 3:11).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또한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살전 1:6-8).

셋째로,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7 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3 장 22 절에 이렇게 그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현대인의 성경)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가시 떨기에 씨가 뿌려진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 떨기에 씨가 뿌려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염려(걱정)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마 13:22). 이 외에 기타 욕심(막 4:19)과 향락에 기운(쾌락)(눅 8:14)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가시 떨기’와 같은 환경은, 그 좋은 씨가 섭취해야 할 영양을 다 빼앗기 때문에 그것이 결실하지 못합니다(박윤선). 무슨 뜻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 떨기와 같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우리 마음이 이미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기타 욕심 및 쾌락에게 빼앗겨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저런 세상의 염려든지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과 쾌락에 우리 마음이 빼앗겼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염려하며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할 것입니다.

저는 가시 떨기와 같은 환경을 생각할 때 오래 전에 읽었던 영동 세브란스병원 암 센터 소장인 이희대 의사의 “희대의 소망”이란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분은 유방암 전문의면서 대장에서 시작된 암이 간과 뼈로 전이되어 10 번의 재발을 겪은 암 4 기 환자로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에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읽었던 글 중 암세포가 왜 무서운지에 대한 글이 생각나게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글을 찾았습니다. 인용합니다: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차지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도 한군데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면서 말이다. 암세포는 칼로리 섭취가 지나치게 많을 때 번식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암세포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고칼로리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한다. 암세포가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독식하면서 성장하듯이, 그 생성 또한 끊임없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인터넷). 마치 이러한 암세포처럼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및 쾌락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및 쾌락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 장 22 절을 보면 저자 마태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혀”라는 말은 영어로 “choke it”이란 말로서 그 의미는 ‘숨이 막히다,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어 단어는 “strangle”로서 그 의미는 ‘목을 조이다’, ‘목 졸라 죽이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머리에 넣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우리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무엇인가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및 쾌락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및 쾌락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되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치 암세포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및 쾌락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8 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3 장 23 절에서 그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 배, 60 배, 또는 30 배의 열매를 맺는다”]. 즉,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자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8 장 15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a noble and good heart)에서 ‘착하고 좋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두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좋은’(good)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이란 의미를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인 “좋은 마음”(good heart)이란 도덕적으로 똑바른[곧은, 고결(순결)한(noble)] 마음을 가리킵니다(Zodhiates). 그런가하면 첫 번째 단어인 “착하고”란 단어는 “아름답다’(beautiful)이란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에는 ‘건강하다, 바르다, 적합하다’(healthy, sound, fit)란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Friberg).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누가복음 8 장 15 절에 나와 있는 “착하고”란 개혁개정 성경의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바르고”라고 번역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한 이유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의 마음은 어떠한지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르고 건강하되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적합한 마음입니다. 또한 그 마음은 도덕적으로 똑바르고 고결(순결)한 마음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17 장 11 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현대인의 성경)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누가복음 8 장 15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마음’의 영어 번역인 “a noble heart”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 17 장 11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개혁개정) 또는 “신사적이어서”(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단어의 영어 번역이 “noble character”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구절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13 장 8 절과 23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란 ‘바르고 건강하되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적합한 마음’이요 도덕적으로 똑바르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상고, 곰곰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성가 “작은 불꽃 하나로 남아”라는 찬양의 2 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름 없는 들 풀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찬바람에 견디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꽃피우지 못한 죄인 열매 없는 무화가라 허송세월 보낸 이 몸 엎드리어 우웁니다 슬픔 근심 가득 찰 때 하늘나라 소망하며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온 세상 향내 내는 작은 들풀 하나로 남아 피우고 또 피워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이 가사 중 특히 저는 “꽃피우지 못한 죄인 열매 없는 무화가라”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맺고자 할 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100 배, 60 배, 혹은 30 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적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적합한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요 바르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들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신앙)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이겨 나아 갑니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및 기타 욕심과 쾌락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추수 때에”

[마태복음 13 장 24-30 절]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무엇을 생각하고 씨를 뿌릴까요? 분명히 농부는 가을의 추수 때를 생각하고 봄에 씨를 부지런히 뿌릴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수고하는 이유는 바로 가을 추수 때에 곡식(참고: 딩후 2:6)이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약 5:7). 성경을 보면 농부였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인터넷). 구약 창세기를 보면 가인(4:2), 노아(9:20) 그리고 이삭(26:12)이 농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아스(룻 2:3-16)와 스라갸(슥 13:5)도 농부였습니다. 물론 스라갸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임을 말했습니다(슥 13:5).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5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1 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 장 6 절을 보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곡식이란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24-30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 앞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30 절에 와서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시면 “추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추수 때에”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곡식과

가라지”는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24-26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곡식”이란 “좋은 씨”가 밭에 뿌려져서(24 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이삭에 충실한 열매인 곡식(알곡)을 가리킵니다(막 4:28). 여기서 “좋은 씨”란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마태복음 13 장 36-43 절을 보면 그 좋은 씨를 “밭”인 이 세상에 뿌리신 분은 바로 “인자”(37 절), 즉 예수님 자신이시며 그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38 절). 여러분, 누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사 그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심겨져 예수님을 믿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요 3:16)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빌 3:20). 이러한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참되이 받은바 되어 그 생활에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약 1:13, 벧전 1:23). 그리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삽니다(박윤선).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13 장 38 절을 보십시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참되이 받는 천국의 아들들과 반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악한 자들입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이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밭에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39 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3 장 1-9 절에서 묵상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 “길 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19 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악한 자”란 “사탄”(막 4:15) 또는 “마귀”(눅 8:12)로서 길 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목적은 그들로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눅 8:12).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25 절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은(38 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악한 자들이요 불신자들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41 절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 말씀을 보면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거짓된 자들을 교회 안에 심었습니다. 그 거짓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의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1) 중생 되지 않았으므로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이해하지 못함, (2) 죄를 참으로 미워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을 진실되이 회개할 줄 모름, (3) 천국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고 기울어짐, (4) 외식과 간사와 교만이 생활의 주동력이 되어 있음, (5) 어떤 때에는 진실하게 도의(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와 염치를 주장하고 힘쓰지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과 육체를 중심한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교훈을 받는 외식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외모에 있어서 진실과 선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렇게 겉과 속이 반대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이 참 신자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 장 25 절에서 원수 마귀가 언제, 어디에다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서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원수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뿌렸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이 말은 원수 마귀를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을 심되 참 신자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침투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거짓 선생들을 은밀히 교회에 침투시켜서 거짓 교훈으로 참 신자들을 미혹시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 24:11).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마 24:5, 막 13:6). 마태복음 24 장 24 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의 목적은 참 신자들을 미혹하여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고후 11:3).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신자들도 있지만 거짓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듯이 지금 교회 안에서 참 신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신자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변화되는 삶을 살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향기를 들어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들은 마귀의 말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사탄의 말을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욱더 악을 행하므로 더욱더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참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은 각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더욱더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신자입니까?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 때”는 어느 때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종들이 밭에 뿌린 좋은 씨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고 집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27 절). 그 때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28 절). 그 때 종들은 집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28 절). 그 때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 30 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 두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종인 천사들에게 참 신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짓 신자들을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에 혹여나 우리가 잘못 구별하여 거짓 신자들을 교회에서 아주 단절시키려고 하다가 참 신자들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 버리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참 신자들이나 거짓 신자들이나 다 그냥 두라는 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누가 참 신자적이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구별하여 거짓 신자들을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거짓 신자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오늘 본문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수 때에 주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수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그 추수 때란 바로 “세상 끝”입니다(39 절). 그리고 세상 끝이란 바로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서는 추수꾼들인 그의 천사들을(39 절) 시키셔서 곡식인 천국의 아들들인 참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과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인 불신자들, 거짓된 자들,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각각 구분하실 것입니다(참고: 마 25:32). 구분하시되 주님께서서는 먼저(13:30) 그의 천사들을 시키셔서 불신자들, 거짓된 자들(거짓 신자들),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인 참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가운데서 갈라내어서 풀무 불인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40-42 절). 49-50 절을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세상 끝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곡식과 같은 참 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인 천국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빌 3:20).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21 절).

여러분, 세상 끝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의 천사들을 시켜 먼저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두어 영원한 지옥 풀무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마 13:42).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곡식인 천국의 아들들을 모아 주님의 공간에 넣으실 것입니다(30 절). 마치 농부가 추수 때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실 것입니다(계 14:14-16). 추수 때에 주님께서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어 주님의 공간이 “자기 아버지 나라”로 들이실 것입니다(마 13:43). 거기서 천국의 아들들인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43 절).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 장 7-8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 장 22-33 절]

2014 년 4 월 16 일 오전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사고로 지금 한국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포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인터넷 세종신문(2014. 4. 26.)을 보니까 사설/논평에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이란 제목아래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제가 그 글을 읽게 된 이유는 그 사설 제목에 저 또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고국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사고들이 터진 것을 뒤돌아볼 때 과연 한국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일까 생각해 볼 때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0 년대 이후 주요 대형 사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1) 1993 년 10 월 10 일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 명 사망, (2) 1994 년 10 월 21 일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로 32 명 사망, (3) 1994 년 10 월 24 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30 명 사망, 1995 년 4 월 28 일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 폭발로 101 명 사망, (5) 1995 년 6 월 29 일 서울 삼풍 백화점 붕괴로 502 명 사망, (6) 2003 년 2 월 18 일 대구 지하철 방화로 190 명 사망, (7) 2014 년 2 월 17 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지붕 붕괴로 10 명 사망.(인터넷) 저는 이 사고들 외에 특히 한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범죄(최근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에 대한 뉴스를 생각하면 과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2000 년 994 건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2009 년) 2699 건으로 271.5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러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동네가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고와 재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명을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 1990 년 이후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을 보면 시민들이 충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1 장 6 절을 보면 재난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22-33 절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27 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접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그들이 접한 두려운 상황은 무엇이였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24 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었고 그 때 그들이 접한 첫 번째 두려운 상황은 바로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느 정도 휘몰아 쳤기에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6 장 15-21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때 불었던 바람을 “큰(강한) 바람”이라고 말하면서 큰(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18 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 배에 타고 있고 그 타고 있는 배가 바다 한 가운데 있는데[막 6:47(현대인의 성경)]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나 1 장 4 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므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불면 당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때 요나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4 절).

이번에 지나 여러분이나 다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 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뉴스로 접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고의 원인이 큰 바람이 불어 큰 폭풍이 바다에 일어나서 배가 침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한 해역이 “맹골수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골수도”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수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두 번째로 조류산 쉼 곳으로 이곳의 물살은 최대 6 노트, 시속 11km에 달한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리고 6시간에 한 번씩 밀물과 썰물이 바뀌므로 이 뱃길은 선원들 사이에서도 대표적인 위험 항로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골수도가 거센 물살뿐만 아니라 제주도로 향하는 국내 여객선들이 항로를 바꾸는 곳으로서 급회전 바닷길인 ‘변침구간’이라고 합니다. 베테랑도 힘들다는 이 구간을 초보 항해사가 수 십분 동안 좌우로 급회전을 반복하므로 무리하게 꺾다가 화물과 승객이 한쪽으로 쏠려서 배가 넘어졌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렇게 위험한 항로에서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순간 가라앉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접한 두려웠던 상황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치는 가운데 배 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들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6 장 48 절을 보면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저자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애썼겠습니까? 살고자 그리했지 않았겠습니까? 요나 1 장 13 절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요나로 인하여 큰 폭풍이 바다에 임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기 전에 먼저 그를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나서에 나오는 이방인 사공들처럼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갔다고 요한복음 6 장 19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여리쯤이라면 한 4.5 킬로미터(현대인의 성경)이고 마일(mile)로는 한 3에서 3.5 마일입니다(NIV).

이렇게 한 3-3.5 마일 노를 저어 가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임한 두려운 상황은 무엇이었습니다?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26 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오늘 본문 25 절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한 새벽 3 시에서 6 시 사이라고 합니다(Walvoord).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한 바람과 파도와 싸워 노를 저었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새벽 3 시에서 6 시가 되기 전까지 밤새도록 힘써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칠 때로 지치고 거의 탈진할 정도까지 되었을 텐데(아무리 그들 중에 전문 어부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때에 그들은 바다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물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놀라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26 절).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바다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대중적이었던) 믿음(popular belief)은 바다는 악한 영의 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Hagner). 그 말은 어쩌면 제자들은 바다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악한 영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난 속에서 힘써 배를 몇 시간이 저어면서 심신이 많이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어느 물체가 바다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제일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접한 제일 두려웠던 상황은 무엇이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두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은 없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의 공포로 시달리는 분은 없으신지요? 만일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 14:27).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입니다.

한 3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23 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우리를 보내신 후”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남자만 5,000 명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를 가리킵니다(13-21 절).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그의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2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요 6:15)과 작별하신(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마 14:23, 막 6:46). 왜 예수님께서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마 14:23, 막 6:46).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러 자주 한적한 곳이나 산에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마 14:23, 26:36; 막 1:35, 6:46, 14:32; 눅 5:16, 6:12, 9:18, 29, 11:1, 22:41, 44).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보내신 후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장이 요한복음 17 장을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 장 9 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 기도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전”해 주시길 간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11, 15 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7 장 25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 장 12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25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밤 사경”, 즉 새벽 3 시에서 6 시 사이에 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의 제자들을 육지에서 보시고(막 6:47-48)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신대로 그의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 편 8 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 14:27).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30-31 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다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26-27 절). 그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 절).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29 절).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때 그는 소리 질러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30 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31 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31 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서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나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마태복음 8 장 23-27 절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타고 있었을 때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24 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기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25 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후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때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26 절).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게 여겨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라고 수군거렸습니다(27 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장 32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후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막 6:51). 왜 그들은 이리도 놀랐을까요? 이미 마태복음 8 장에서 예수님께서서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것을 경험한 이들이(26 절) 이렇게 또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후 왜 또 심히 놀랐을까요? (막 6:51) 마가복음 6 장 52 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졌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목격하고 심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 놀람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마 14:33).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만 물이 빠지는데서 건져내신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었던 자신의 제자들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타시사 바다를 잔잔케 하시므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이다’입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보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마태복음 15 장 1-20 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중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대한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식구가 질병 중에 죽으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기 1 장 20 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1 절) 욥이란 사람이 자신의 열 명의 자녀들을 다 죽고 모든 재물을 다 잃은 후에도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심히 앓다가(삼하 12:15) 그렇게 금식하고 간구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19 절) 그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20 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4 장 23-24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9 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1 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써 예수님에게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야”(마 23:33)라고 크게 꾸지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나 창녀들도 꾸짖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리도 크게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 가지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 3 가지란 바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딤후 3:5)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 2:8)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롬 10:2).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야”라고 꾸짖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7 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말씀은 이사야 29 장 13 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8-9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3 장에서 자그마치 7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2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3 절).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3 절).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 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잘못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데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마 23:5-7).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6 절)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7 절상).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선생님)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7 절하).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였습니다(5 절).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마 6:2). 또한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5 절).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봉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외식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벧전 2:1). 만일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안으로는 외식이 있다면(가득하다면)(마 23:28) 우리는 그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3 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 나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시하였던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2 절을 보면 그들이 중요시하였던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마가복음 7 장 3-4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요시했던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것과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꼭 씻고 먹는 것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보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재되지 않은 많은 규칙들을 유전하였다고 말했습니다(박운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마 15:2; 막 7:2).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2 절). 그들에게 있어서 씻지 아니한 손(unwashed hands)은 부정한 손(unclean hands)이었습니다(막 7:2). 그래서 마가복음 7 장 5 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3 절). 마가복음 7 장 8-9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버리고 범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4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출애굽기 20 장 12 절과 21 장 17 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범하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마 15:6). 즉,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르반)(Corban: a gift devoted to God)고 하기만 하면 자기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막 7:11-12). 그 때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재산을 성전에 바친다는 서약만 하고서 그 일생 동안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노골적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술책입니다(박윤선). 그것은, 참으로 가증한 죄이며 하나님 봉사의 성스러운 이름을 이용하여 불효의 죄를 기른 큰 악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디모데전서 5 장 4 절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서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디모데전서 5 장 8 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핑계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한 우리 집에서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이 만든 계명들(규칙들)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면서 사람들의 전통이나 규칙들에 얽매어서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술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11 절과 18 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11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부적인 것은 그 무엇이든지(예컨대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음) 사람을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왜 예수님께서서 이리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경우에 그 음식이 도덕적으로 저희를 불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막 7:18)고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7 장 19 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요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19 절과 유사한 말씀인 마가복음 7 장 21-22 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막 7:23).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20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이요 외식적이요 장로들의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씻지 아니한 손(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인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초점은 사람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마 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27 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28 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을 깨끗케하는데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마음을 깨끗케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6: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즉 마음을 깨끗케 하는데 헌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잠 23:19).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17 절).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므로 탐욕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눅 6:14).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잠 4:10-11).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4 절).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 장 22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또한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 장 21-28 절]

지난 주 저는 ‘경제적 두려움에서의 자유’(Freedom from Financial Fear)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은 이유는 책 제목 자체에 관심이 끌렸고 또한 그 책을 쓴 분이 “전도 폭팔”이란 전도지를 만든 고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목사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약속의 말씀들 중 그가 초점을 맞춘 성경구절은 바로 말라기 3 장 8-10 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성경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10 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받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케네디 목사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자 케네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경제적(finance) 문제이기보다 믿음(faith)의 문제입니다.’(“Tithing is not a matter of finance; it is a matter of faith”). 이 말은 우리가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말라기 3 장 10 절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케네디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란 바로 마태복음 14 장 22-33 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에서 내려 물위로 건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나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물위로 잠시라고 걸은 베드로의 믿음도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믿음인데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21-28 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가 나옵니다. 28 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태는 이 믿음이 큰 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2 절). 그리고 그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7 장 25-26 절 상반절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 마가에 의하면 이 믿음이 큰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인이란 말은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로서 수로보니게 족속, 즉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 사람으로서 이 민족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북향하고 쫓겨 갔던 가나안 민족의 자손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마태는 그 여인을 한 마디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마 15:22).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22 절).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큰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믿음이 큰 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한 2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큰 자는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7 장 24-25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아래에 엎드리니.” 성경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는 갈릴리 서북방, 곧 가버나움 지방의 게네사렛 땅을 가리킵니다(마 14:34).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마 15:1).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2 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9 절). 예수님이 그들을 그리 책망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기 때문입니다(8 절). 그들과 대화하던 거기를 떠나 예수님이 가신 곳은 바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막 7:24).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막 7:24).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숨기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곧 나왔다는 사실입니다(25 절).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그 두로 지방의 한 집을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후 1 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 가나안 여인이 만났던 두로 지방은 수로보니게 땅으로 갈릴리 북편에 붙은 지역으로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였는데 유대인을 원수시하였다고 합니다(박윤선).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온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원수시했는지 않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그녀는 주위에 모든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원수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장 예수님께 와서 그의 발아래에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저 한 유대인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22 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였습니다(22,4 25 절).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지난 주 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현재 미국 기독교인들을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문화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을 생각할 때 만일 그녀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과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해 본 이유는 만일 그 여인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녀는 문화적으로 원수시 했던 유대인 예수에게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우리 이방인이 저 유대인을 원수시 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의 귀신들림을 저 유대인 예수가 혹시나 고칠 수 있을지 모르니 한번 가보자.’ 여러분, 만일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녀는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더라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도 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마지막 둘째로, 믿음이 큰 자는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 장 22 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소리 질러 간구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흉악하게 귀신들려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되 그녀는 그저 한번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만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3 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라고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성경을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간절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데도(23 절) 불구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녀가 그리도 간절히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막 7:26).

만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신데도 계속해서 주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2 편 2 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만의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주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리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셨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시 35:22). 그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83 편 1 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생각엔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가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침묵은 그 여자의 신앙이 간절한가를 알아보시려는 까닭이었습니다(박윤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보되 우리는 과연 나의 신앙이 간절한가, 과연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 장 7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며 계속해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신앙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마 15:22).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여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23 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4 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으신 것일까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으셨나 보구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게 아니시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안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은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유대인들이라기보다 영적인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렘 50:6). 만일 예수님께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인 요한복음 17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9 절)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여 보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과연 그녀의 신앙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진정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25 절). 여기서 “절하며”란 헬라어 원래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그리스도)로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26 절).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오직 유대인만 가리키고 “개들”이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인 유대인에게 주신 “떡”을 당신 같은 이방인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만 베푸는 천국의 축복(병 고쳐 주는 것 같은 은혜)을 이방인에게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물리갔을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7 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여인의 말을 생각할 때 종종 식당 밖에서 식사할 때 비둘기가 식탁 밑과 주위에서 걸어 다니면서 혹시 음식 조각이 떨어져 있지 않나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번 필리핀에 갔었을 때에도 장로님께서 다른 의료 선교 팀원들과 테이블에서 검진하고 있었을 때 개들이 그 주위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개들이 말라보인 것을 보면 잘 못 먹는 개들 같아 보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이 여기는 개 같은 이방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주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은 개 같은 이방인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축복인 병 고치는 것 같은 은혜를 유대인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옳지만은 개 같은 이방인인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사(마 15:22) 자기에게도 그 천국의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히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막 7:29),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마 15:28).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큰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그녀에게도 천국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서 속히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식구를 위하여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 때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모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이웃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 집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이웃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에 관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경배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므로 주님께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하여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자세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되 우리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